

한국 대학의 共同體 文化

全 智 湧

(朝鮮大 史學科)

우리 대학의 共同體 文化는 社會變化와 맞물리어 어느 정도 過渡期의 陣痛을 겪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는 文化의 斷絶을 의미하는 맹목적이고 일방적인 행동양식이며, 타인에 대한 고려를 거부하여 공동체의 人和를 깨뜨리는 我執이다. 대학의 구성원들 모두가 大學內 問題에 공동으로 관계되는 것인 만큼 어느 일방에 대한 문제 제기 또는 일방적인 강요만으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다.

1. 序 論

民主主義로 가는 길목에서 대학의 自治活動이 어떤 문제들을 갖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한지를 진단해 본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면서 그만큼 어려운 문제일 것이다. 현재 한국 학생운동의 진술한 위상은 그것이 외형상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또 어떤 주장을 하고 있거나 간에 한국 現代史에서 고질적이었던 이데올로기 갈등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소련과 東歐의 사태가 우리나라 학생운동권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이고, 그 영향이 어느 정도인가는 쉽게 단정하기 어려운 것이겠지만 한번은 짚고 넘어 가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전제 위에서 대학의 自治活動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다른 集團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

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그것들이 조화롭게 存立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닌지를 가늠하게 하는 것이다. 지금 각 대학의 사정에 따라서 學內的인 문제 혹은 政治的인 문제 등 다양한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다. 때문에 이 글에서는 그들의 현실 인식과 그에 대한 대응 등에 대해 복잡하고 구체적인 수 많은 사례들을 하나 하나 열거하여 분석하기보다는 일반론적인 차원에서 단순화시켜 이야기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인간 개개인이나 인간집단들의 外形的인 행동들을 일일이 거론한다는 것은 어쩌면 無用한 작업에 불과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2. 이데올로기의 問題

우리나라에서 이데올로기적인 갈등의 역사는 멀리 日帝時代까지 소급되는 것이겠지만 여기에서 그 역사에 관해 論爭할 의도는 없다. 단지

현실로서 그것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으며, 그 성격과 강도가 지역적으로 어느 정도 偏差를 보이고 있는 것 같다. 현재 한국의 기존체제나 경제구조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社會 變革運動 혹은 改革運動이건 간에 學生自治活動의 영역에서 그것이 自立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그들이 자신들의 운동에 대해 얼마나 진지하게 사고하고 고민하며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소련과 동구의 사태에 대한 國內의 해석들은 쿠데타 실패 이후인 현재는 ‘맑시즘의 運命이 걸려 있는 중대 사태’(이병진, “현대 마르크스주의의 위기”, 『달』, 1991년 2월호) 혹은 고르바초프를 해체기의 지도자로 설명하면서 社會主義의 종류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조심스럽게 社會主義의 붕괴를 예언했던(김학준, 1991. 2. 9, MBC 시사토론) 경향 등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아직도 사회주의 강화론이나 심지어는 ‘修正主義者들과 사기꾼들의 天下大亂’(최준혁 편역, 『러시아 철학사 I·II·III』의 後記, 녹두)과 같은 해석이 일부 남아 있으며, 가끔씩 대학의 大字報에서 보이는 것처럼 쿠데타는 右傾化에 대한 반발일 뿐이며, 단순한 소련 국내의 문제를 부르주아적인 국내 언론들이 지나치게 과장 보도하고 또 매도하고 있다는 견해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資本主義가 완전한 제도가 아니므로 그 속에 모순이나 병폐가 존재한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지만, 그에 대한 유일무이한 代案이 社會主義라는 설부른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본인이 알고 있는 바로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들과 또 그들에 대해 막연히 심정적으로 혹은 조직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으로 다르고 있는 다수 학생들의 경우 “사회주의란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얼마나 진지하게 사고해 보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어쩌면 사회주의가 人間의 福祉를 추구하고자 했던 과정에서 나온 하나의 아이디어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는지... 또한 자본주의가 안고 있는 문제점 가운데 古典的 의미의 自由主義가 어떤 내용인지, 왜 문제들이 발생했는지, 어떠한 改善策들이 지금까지 나와 있는지 등등을 얼마나 진지하게 思考해

보았는지도 궁금하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도 없이 곧 바로 그 어떤 하나를 향한 맹목적인 확신이 성숙되었다고 누군가가 장담한다면 정말로 얼마나 설부른 것거리로 보여질까?

東·西를 막론하고 아무런 준비 없이 행해지는 既存의 價値體系에 대한 도전이 얼마나 엄청난 반발을 일으켜 왔으며 그 영향이 어떠한가 하는 것은 歷史가 우리에게 교훈으로 가르쳐 주고 있다 하겠다. 자신의 능력과 위상을 무시하고 또한 미래에 대한 대략적인 계획도 없이 행해지는 단순한 파괴만을 학생들이 추구한다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虛無主義를 낳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학생활동이 진정한 의미의 自治를 확립하고자 한다면, 배우고 研究한다는 학생으로서의 位相 確立이 선결과제인 것으로 보여진다.

3. 行動樣式의 問題

젊은이들의 특징이기도 한 血氣와 執念이 지나쳐 목적이 수단을 合理化한다는 我執에 쉽게 빠지는 경향이 우리의 大學社會에도 존재하고 있다. 이것은 어쩌면 젊은이들의 순수한 모습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기도 하지만, 民主主義 社會에 필요한 규범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인내하고 참을 줄 아는 자세는 가끔씩 나쁜 의미로도 받아들여지고는 있지만, 個人主義의 이고 利己的인 인간의 욕망을 조화시켜 나가는 과정에 대한 훈련이라고도 볼 수 있다. 물론 調和라는 표현 속에는 ‘학생들에 대한 타인들의 일방적인 강요’라는 개념이 분명 거부되고, 하나의 人格體로서 대우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는 기성세대, 특히 教授集團에게도 반성의 여지가 있음을 인정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배워 가는 것은 民主主義 社會에 필요한 규범을 터득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현재 한국의 학생들에게 부족한 ‘學生’으로서의 位相을 찾게 하는 것이며 성공적인 자치활동의 존립 여부와도 관계가 있을 것이다.

에덴 동산에서 이브는 ‘禁止된 것을 破格’하고자 하는 스스로의 유혹에 결국 지고 말았다. 이러한 인간의 本能은 理性으로도 제어하기 힘

든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적어도 人間으로서 절제하는 모습만은 스스로 보여 주어야 한다. 家族도 물론 그러하지만, 하나의 共同體가 존속하기 위하여는 그 構成員 모두가 스스로 침해해서는 안 되는 그 어떤 부분이 반드시 존재한다. 그것이 상징이거나 혹은 어떤 형태의 權威이거나 간에—물론 그것이 우상화되고 정제된 그런 것이 아니라—전제가 필요하지만—共同體의 구성원 모두가 스스로 자신의 한계(儒敎에서 말하는 ‘分’으로 이해해도 무방할 것 같다)를 인식하고 그것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약속이나 同意가 스스로 이루어져 있어야만 그 사회가 건전한 사회로 존속하고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구성원들이 모든 것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침해하는 행동을 한다면 그 社會는 무질서한, 소위 말하는 恐龍이 출현한 社會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구체적인 사례들 가운데 요즘은 試驗을 본다는 행위 자체가 학생들이 教授集團에게 존재의 미를 부여해 주기 위해 혹은 그 職業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지 못해 행하는 것으로 교수들에게 받아들여진다. 자신을 위해 공부하고 또 시험을 본다는 의식은 학생들에게서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顛倒된 의식 상태는 어린 이들이 부모를 위해 밥을 먹어 주는 것처럼 되어 버린 현상에서 보듯이 어릴 적의 家庭教育에서부터 문제가 있다 하겠다. 하지만 세상을 이렇게 쉽게 이해하고 안이하다 할 정도로 自己責任感 없이 萬事에 임하는 것은 책임있는 成人의 자세가 아니라 정도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 사회의 발전에 커다란 障礙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原則을 이야기하다가도 막상 그 원칙이 자기 자신에게만은 例外이기를 바라는 요즘 학생들의 자세가 만약 지속된다면, 우리는 그들을 통한 미래 세계의 희망을 포기해야만 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그러한 자세는 어디까지나 자기편의주의적인 것일 뿐 共益을 위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4. 서클活動의 明과 暗

최근의 大學街에서 가장 눈에 띄게 달라진 점

은 학생들의 個性表現이 예전에 비해 훨씬 自由로워지고 활발해졌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다양하고 자유로운 文化的 底力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극히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다. 한스 콘(Hans Kohn)은 유럽 문화의 장점이 다양성과 조화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문화의 創造性和 自生力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도 우리 大學에 다양한 서클 활동이 자유롭게 펼쳐진다는 것은 분명 희망적인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밝은 면 뒤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음도 역시 숨길 수 없다. 특히 騷음을 동반하는 축제 때, 춤이나 농악 혹은 탈춤 활동 등으로 근처에 도서관이나 研究室 혹은 듣기 싫어 하는 사람들이 있거나 말거나 가장 좋은 길목이나 장소를 골라 사람들의 耳目을 집중시킨다. 혹시라도 어떤 교수들이 주의를 주면 그 효과가 10분을 넘지 못한다. 도대체 이러한 그들의 行態는 自己中心的이고 일방적인 限下無人이라고밖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을 것이다. 그러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가 그 곳밖에는 달리 없다고 한다면, 만약 정말로 그러하다면 學校構造의 設計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또 하나 서클 활동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필자가 몇 년 전 탈춤 서클을 지도한 경험으로 알게 된 것이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本末이 전도된 것처럼 學業보다는 서클 활동에 더욱 沒入해 있다는 것이다. 그중의 소수는 현재의 취미 활동이 후에 본격적인 人生의 同伴者가 되는 경우가 혹시 있을 수도 있겠다. 것처럼 미친 듯이 한 분야에 빠져들어 人生의 길을 바꿀 수 있는 소수의 경우를 제외한다면, 절대 다수의 학생들은 그러한 경지에 沒入하지도 못하면서 本業은 본업대로 핑개쳐 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나 허다하다. 이것은 個人的으로 불행일 뿐만 아니라 共同體 전체의 질서와 분위기를 흐트러뜨리는 것이다. 학생들의 경우 좀더 진지하게 自身을 먼저 思考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어떤 학생들이 말했던 경우처럼 전체의 분위기에 휩쓸리면 혼자서 개인적인 행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은 ‘강요되는 분위기’를 만드는 쪽에도 문제가 있지만, 우선은 이미 成人이 된 본인 당사자

의 책임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

학생운동도 그러하지만, 서클 활동의 경우도 낭만적이거나 무사안일적인 환상에 의존하는 자세는 반드시 지양되어야 한다. 그러한 자세는 ‘반드시’라고 할 만큼 훗날의 후회를 수반하고, 아니면 당사자가 감당해야 할 후회를 社會가 감당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된다. 「데미안」이란 책에서도 나오는 것이지만, 친구들 속에서 나타나는 젊은이들의 英雄心理는 어른들의 理性으로는 잘 납득이 가지 않는 면이 있다. 어릴 적 혹은 젊은 시절에 잠깐 스쳐 가는 그러한 逸脫은 어쩌면 ‘젊음의 벗’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 지나가는 ‘젊은 때의 추억’이라고 하기에는 彷徨과 逸脫의 정도나 시간이 너무 지나친 감이 없지않아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남지 않을까 우려된다.

5. 學生活動的 明과 暗

필자가 들은 것 가운데 다음과 같은 일이 있다. 어느 날 某대학의 學生處長室으로 전화가 왔다. 전화를 건 이는 學生會의 중간 간부이었고, 處長室에서는 마침 다른 職員이 전화를 받았다. “학생회장님 전화입니다. 處長 전화받으라고 하세요!” 어쨌건 전화는 처장에게로 바꾸어졌다. 이 해프닝은 학생들이 失禮를 범했다는 것을 말해 주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學生組織員들이 평소에 가진 意識構造를 말해 주고 있다고 하겠다. 다시 말하여 民主化 過程에서부터 矮小화된 교수들의 위치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學生組織이 갖는 單純性을 극명하게 보여 주었다 하겠다. 상당 수의 대학들로부터 이와 유사한 이야기들을 들었지만, 자신 이외의 他集團에 대해 대단히 배타적인 準軍士의 集團 분위기 속에 학생 지도자들이 카리스마적으로 군림해 왔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 확인 가능한 사실이다. 어쩌면 이것은 현재 학생운동이 쇠퇴하게 된 많은 요인들 가운데 하나이기도 할 것이다.

사실 많은 대학들로부터 듣거나 확인된 것이지만, 學生會室의 규모와 內裝 그리고 위치 등이 또한 지적되어야 할 문제 가운데 하나이다.

어쩌면 教授研究室에서도 갖추고 있지 못한 각종 실내 비품들과 장식은—물론 그 대부분은 시끄러운 學生會를 조용하게 하기 위해 學校當局이 제공한 것들이긴 하지만—보는 사람들의 敬畏心을 일으키기보다는 오히려 拒否感을 일으키고 있다. 勢가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인다는 평범한 진실(?)을 行動으로 보여 주고자 하는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현상은 요즘 와서 學生會에 지나치게 복잡한 機構들이 생겨나고 서클들이 亂立하고 있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學生會의 존속을 위하여 어느 정도의 勢를 과시하고 그 運營에 필요한 경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대체로 인정하겠지만, 學生으로서 갖추어야 할 德目이면서 어쩌면 學生運動의 가장 큰 힘 가운데 하나였던 ‘道德性’이 상실되고 있지 않은가 염려된다. 만약 그러하다면 그들이 어떤 自己辯明을 하건 目的과 方法이 顛倒되었을 수도 있고, 더 심한 경우를 상정한다면 學生運動 자체의 生命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후자의 경우라면 부패한 社會와 政治가 생명력 없는 學生運動의 生命을 살려 왔다고 볼 수 있는데, 정말 그러하다면 相乘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의 生命력은 어찌되는 것인가?

學生運動은 自由롭고 開放의이어야 한다. 이는 모든 文化의 生命력이 바로 그곳에서부터 나왔었다는 경험적인 지식을 통하여 단언될 수 있을 것이다. 비밀스런 작업이 지나치면 정작 비밀스러워야만 할 작업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거부감을 느끼게 된다. 다수의 사람들에게 疏外感을 축적시키게 되면 상대적으로 자신이 그만큼 그 사람들로부터 疏外될 것이며, 共同體內 人和는 더이상 존속하기 힘들게 된다.

學生自治活動의 目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답이 나올 수 있겠으나, 그중에 학생들과 大學內 공동체 구성원들 모두의 福祉 문제도 있을 것이다. 도서관, 장학금 문제 이외에도 근래 대학들에서 소비자 협동조합의 형태들이 눈에 뜨인다. 물론 이것이 自販機와 같은 문제에서 나타나듯이 금전 문제가 개입되고 있는 것은 불가피한 현실이지만, 바로 그것 때문에 雜音이 발생한다면 본래의 취지에 어울린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어쨌건 소비자 협동조합의 운영은 현

제로서는 大學 共同體의 구성원 모두에게 제법 유익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이 지속적으로 유익한 기구가 되게 하려면 그 운영을 公開的으로 개방하고 공식 기구를 만들어 그 관리를 맡겨야 할 것이다. 모든 기구의 존재 이유는 그 구성원들의 복지를 위하는 데 있을 것이며, 그 목적을 충실히 하는 데에도 또한 있다 하겠다.

6. 他集團의 問題

필자에게 주어진 직접적인 主題는 아니지만 大學內의 모든 문제는 공동 책임을 느껴야 할 것들이므로 學生 自治活動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學校問題를 결정짓는 주요 변수들인 財團과 教授集團 등의 문제를 주제와 관계있는 정도에서 지적해야 할 것 같다.

요즘은 기여 입학제 문제가 大學街를 시끄럽게 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財團측의 주장에 상당히 일리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기여된 金額의 전부가 學校運營에 그대로 投資될 수 있을런지에 대해 不信하고 있다. 이러한 不信은 대학의 人和를 깨뜨리는 중요한 요인이다. 기여 입학제의 요구 이전에 經營 合理化 작업이 먼저 수행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大學이 혹은 經營에 직접 관계하는 주체들이 먼저 術선수범하면서 合理的인 經營과 균살배기 작업을 시행하면서 그러한 요구들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들은 매우 原則論에 치우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 절대로 흘려버릴 수 없는 부분들이 담겨 있다.

학생들의 요구 사항 가운데 理性的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것들은 開放大學을 一般大學으로 바꿔 달라는 것과 單科大學을 무조건 綜合大學으로 승격시켜 달라는 것 등이다. 사람에게 따라서는 이 문제를 開放大學의 본래 취지에 관계없이 들어 온 학생들이 開放大學이 갖는 이미지를 싫어하는 그들의 단순한 意識構造와, 財團과 教授들의 이해관계가 일치한 결과로 받아들이고 있다. 또한 單科大學을 綜合大學으로 승격시키고자 하는 경우도 주어지는 여러 가지 혜택의 차이 때문에 財團과 教授, 학생들의 利害關係가 일

치한 결과가 집단 행동으로 표출된 것으로 사람들은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開放大學이 왜 생겨났으며, 單科大學과 綜合大學의 區分이 무엇에 의거하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集團利己主義가 짓밟아 버린 대표적 사례들이라 하겠다.

또한 講師集團은 그들 나름대로 기존 教授들과 財團의 集團利己主義를 지지한다. 그들의 불안한 현재 위치와 부족한 研究費 그리고 生計費를 염려해 주기는 커녕 오히려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기회도 이용한다고 불평한다. 예를 들면 교수들이 초과 강의시간을 챙기는 데에는 대체로 財團側과 이해관계가 일치하며, 과잉 배출된 高級人力의 불만을 침묵시키는 데에는 政府側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見解와 불만의 정도는 같은 30代 내에서도 그 차이가 현격하게 드러나는데, 대체로 젊을수록 강한 불만을 갖고 있다. 대학이 전통적으로 保守的인 集團이라고는 하지만 이러한 불만들이 전혀 터무니없다고는 하지 못할 것이다.

7. 맺음말

지금까지의 짧은 글에서 學生會 혹은 學生生活의 문제점들을 찾아 보았다. 먼저 지나치게 맹목적이고 일방적인 특성이 지적된다. 他人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는 점은 靑春의 아름다움이라고 이해해 주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大學文化 발전의 커다란 장애 요인이라 하겠다. 偶像의 파괴라는 명분이 지나쳐서 실제 共同體의 존속을 위해 필요한 權威 혹은 상징 등 일체의 것에 도전하는 것은 오디푸스 콤플렉스(oedipus complex)를 文化的 發展過程에 적용·해석했던 마르쿠제(H. Marcuse)의 이야기에서 보듯이 자기 자신의 뿌리마저 죽여 버리고 결과적으로 자신이 서야 할 자리마저 없애 버리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文化的 斷絶을 의미하기 때문에 각 共同體 構成員들과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서클 활동의 경우도 지나치게 취미 활동에 탐닉하여 本業을 소홀히한다거나 準軍士的인 집단으로 조직을 운영하면서 그들이 비판해마지 않는 기성세대를 어느새 닮았는지 카리스마적 자

도자의 이미지를 만들고자 하는 것도 건전한 共同體의 유지를 위하여 사라져야 할 것들이다. 모든 機構의 존재 목적에 따르기 위해서도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운영과 관리 기구를 갖춘 소비자 조합 등의 운영은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大學 共同體의 모든 構成員들이 大學內의 문

제에 공동으로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느 일방에 대한 문제제기만으로는 일방적인 강요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것이다. 權威는 강요될 수 없는 것이듯 人和도 일방통행식으로 강요될 수 없는 人格體들 사이의 調和에서 나오는 것이다. ■

<投 稿 案 內>

「大學教育」 제56호에 게재할 原稿를 다음과 같이 公募합니다.

1. 內 容—大學教育에 관련된 論說, 대학에서의 研究·敎授 및 社會奉仕 활동 증에서 대학 사회에 시사할 줄 수 있는 主題에 관한 논의, 각 學科의 敎育과정이나 敎수·학습 활동 등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그 개선 방안에 관한 논의, 외국에서의 연구 동향 소개, 본문에 게재된 글에 대한 反論 원고 등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글

① 論 壇

② 敎授談論

③ 學科別 敎育課題

2. 枚 數—200자 원고지 35매, 45매 또는 55매(②는 20매 또는 25매)
3. 期 限—1992년 1월 20일
4. 稿 料—매당 3,000원(채택된 원고에 한함)
5. 提出處—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2 韓國大學敎育協議會(150-010)
(TEL 783-3891, 780-7942, FAX 780-8311)

6. 附 記

- ① 國漢文을 혼용하되 漢字를 제한하고 필요할 때에는 原語를 併記해 주십시오.
② 論壇原稿에는 반드시 200字 이내의 要約文이나 拔萃文을 첨부하여 주십시오.
③ 제출된 원고는 編輯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게재하며, 원고는 돌려드리지 않습니다.